

‘수소 1g=석유 8t’ …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총력

연구·데이터 축적 실증 시설…신정훈 국회의원 “전남 운명 바꿀 과제”
전남도·화순군과 협력체계 가동…부지 확보·핵심 시험설비 선제 구축

나주시가 수소 1g으로 석유 8t의 에너지를 얻는 기적을 실현할 국내 ‘인공태양 상용화 연구’ 시설 유치를 위해 광역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나주시는 미래 청정에너지 시대를 이끌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전남도와 화순군 등과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전략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나주·화순)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전남의 운명을 바꿀 핵심 과제”라며 “당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 유치를 발 빠르게 나선 나주시는 이미 핵융합 연구 기반과 부지 안전성, 산업 연계성이 두루 뛰어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나주시가 유치를 힘쓰고 있는 연구시설은 인공태양 발전소가 아닌 향후 본격적인 상용화(발전)에 필요한 인공태양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실증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를 위해 지질 안전성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연구시설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

여기에 전남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와 협력해 지난 2022년 인공태양 8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등 연구시설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핵융합 관련 학계와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교류

를 통해 기술 협력 기반도 넓혀 나가고 있다.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핵융합은 반도체처럼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산업”이라며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서 나주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인공태양**
바닷물에서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수소를 원료로 탄소 배출 없이 대용량의 핵융합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청정에너지 생산 장치로 정의할 수 있다. 고갈돼 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계엄체인저를 넘어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와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린다. 무엇보다도 연료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가동이 멈추는 특성상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발전 방식 때문에 핵분열 사고 위험이 늘 존재하는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상구(왼쪽 두 번째) 나주시 부시장과 신정훈(왼쪽)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11일 간담회서 만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나주시 제공)

낮에는 트레킹 밤에는 야경 …가우도, 관광객 ‘복적’



가우도를 찾은 가족 관광객이 새롭게 단장한 야간조명을 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9~10월 방문객 전년비 35% 증가
체험 프로 다채… ‘머무는 섬’ 변신

강진의 대표 해양관광지 가우도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강진군은 9~10월 주말 기준 가우도 방문객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5% 증가했으며, 섬 곳곳에 퍼지는 금목서 향기와 함께 야간경관 콘텐츠, 쥘트랙·모노레일 등 체험시설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가우도는 ‘빛으로 물든 섬’을 주제로 리뉴얼된 야간경관 조명을 중심으로 변화된 모습을 선보이

고 있다. 가우도 출렁다리, 해안 산책로, 모노레일 정류장 일대를 따라 조성된 12문스터 야간경관 콘텐츠 시설과 신비한 야간조명이 커져섬 섬 전체가 은은한 빛으로 물들며, 바다 위에 반사되는 불빛이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특히 SNS를 통해 ‘강진 야경 명소’, ‘감성 데이터코스’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젊은 세대의 방문이 크게 늘었다.

가우도의 대표 체험시설인 쥘트랙과 모노레일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쥘트랙은 하늘 위를 질주하며 바다를 가로지르는 짜릿한 체험으로 주말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9~10월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으며, 섬 정

상부를 오가는 모노레일은 가족 단위 여행객과 노년층에게 인기를 얻으며 월평균 1만명 이상이 이용 중이다.

이러한 상승세는 향략철 가을 관광 수요와 맞물려, 체험과 휴식, 야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가우도의 특성 덕분이라는 게 강진군의 분석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가우도는 낮에는 체험과 트레킹, 밤에는 야경과 조명을 즐길 수 있어 세대별로 모두 만족도가 높다”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테마를 반영한 경관 연출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머무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흥 관산읍 4개 마을 하수관로 설치

국비 보조 신규사업 선정…국비 110억 투입 생활환경 개선

장흥군이 2026년 하수도 분야 국비 보조 신규사업에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하수도 분야 국비 지원 사업으로 장흥군 관산읍 고마리 하발1구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66억 원 등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난해 1월 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착수한 후 국회·중앙부처를 찾아 패류·수산물 위생 향상을 위한 패류생산지역 하수도 보급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해 2026년 신규 사업에 뽑혔다.

사업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관산읍 고마리 하발1구 4개 마을 230가구의 생활하수를 기존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결해 처리하도록 하수관로를 설치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악취·위생 문제 해소를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와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개선된다”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도 보급률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레몬 농가 ‘묘목 수형 관리 교육’

재해형 시설하우스·스마트팜 시설 도입 등 지원



장성군이 고품질 ‘장성 레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지역 내 레몬 재배 농가에서 전문가 초청 ‘묘목 수형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장성군은 2022년 전라남도 ‘신소득원에특화단지’ 공모, 2023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맞춤형 미래전략소득작목 육성시범’ 공모에 잇따라 선정돼 삼서면 일원에 내륙 최대규모 레몬재배단지를 조성했다.

군은 또 이상기후 대비 내(耐)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와 스마트팜 시설 도입, 에너지절감형 난방시설 구축, 친환경 자재 투입 등 체계적인 지원도 펼쳤다. 현재 14농가 3.9헥타르(ha) 규모로 레

몬을 재배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레몬 나무에 올바른 수형 관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형 관리는 나뭇가지가 자라날 때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가지 방향을 유인하거나, 가지를 잘라내는 작업 등을 말한다.

교육에 참여한 지역 농업인 박모 씨는 “수형 관리 방법을 잘 적용해 고품질 레몬 생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을 찾은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 레몬이 농업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국내산 레몬 재배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배, 프랑스 첫 수출길 …유럽 진출 ‘시동’

오스트리아와도 수출 협약

나주시의 특산품인 ‘나주배’가 첫 프랑스 수출길에 오르며 유럽 시장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최근 나주배원예농협에서 프랑스 첫 수출상차식을 가진 나주배는 신고 품종으로 총 4.5t 규모다.

이번 수출은 지난 6월 운병대 시장이 프랑스를 방문해 체결한 농수산식품 수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수출된 나주배는 프랑스 현지 한인 마켓인 ‘에이스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앞서 오스트리아와도 수출 협약을 체결해 유럽시장 진출에 물꼬를 텄다.

운병대 나주시장은 “나주배가 세계인이 사랑하는 명품 과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품질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지난 2일 나주배원예농협에서 프랑스 첫 수출 상차식이 열렸다. <나주시 제공>

함평군, 가임기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혈압·혈당 등 모바일 기기 측정…고령 산모 임신중독증 예방 효과

함평군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로 여성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함평군이 진행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는 20대 2명, 30대 13명, 40대 16명의 가임기 여성을 비롯해 50~60대 여성 29명 등 총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임신 전후 여성은 물론, 전 생애주기 여성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참여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혈압 ▲혈당 ▲하리돌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등 5대 건강 위험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전문가의 1:1 상담과 피드백을 통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고령 산모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임신중독증 예방에도 효과를 보인다. 모바일 헬스케어로

주기적인 혈압 측정과 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리로 산모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여성의 건강은 가정과 지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며 “함평군은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성 건강이 존중받는 함평, 군민 모두가 안심하는 건강 도시 함평을 만들기 위해 보건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자매결연 지자체 주민에 골프장 요금 감면

화순군, 파크골프장 운영 개선…다음달부터 휴장일 조정·월권제 신설

화순군이 정기 휴장일 변경과 자매결연 등 협력 지자체 주민 요금 감면, 군민 월 사용권 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된 파크골프장 운영방식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순파크골프장과 능주파크골프장이 매주 월요일 동시 휴장하던 방식을 변경, 화순파크골프장은 매주 화요일에 휴장하고, 능주파크골프장은 기존 대로 매주 월요일 휴장한다.

자매결연, 우호 교류, 업무협약 등 화순군과 상

호 우호 관계를 맺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 확인되면 관의 일반 요금보다 감경된 요금을 적용한다.

화순군민에게는 월 사용권을 발행에 이용 편의를 더한다.

조영재 화순군 관광체육실장은 “파크골프장 편의 개선과 활성화,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변경된 운영 방식이 조기 정착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